



"몸은 개천에 가 있어도 입은 관청에 가 있다"

뜻: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는 어려운데도, 생각이나 바람은 아주 높은 상황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허영 · 분수 · 욕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몸	은	↓	개	천	에	↓	가	↓	있	어	도
입	은	↓	관	청	에	↓	가	↓	있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몸	은	↓	개	천	에	↓	가	↓	있	어	도
입	은	↓	관	청	에	↓	가	↓	있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모] [ㅓㅗ] [ㅓ] [ㅗㅗㅓ] [ㅗㅗ] [ㅓㅗ] [ㅓ] [ㅗㅓ]

웹에서 보기

